양계안테나

김동진 편집국장

가축질병 공제제도 추진 가금분야 합리적인 적용방안은?

정부에서는 최근 가축질병공제제도 도입을 위한 준비작업이 한창이다. 이미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마친 상태이며, 내년에 시범사업을 거쳐 3~4년 후에는 전면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AI), 구제역(FMD) 등 가축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농가와 정부가 일정비율의 돈을 모아 가축에 대한 사전 진료 서비스, 방역컨설팅 등을 실시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1997년 도입된 가축재해보험이 있지만 가축질병공제제도는 시행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유사한 제도를 적용하는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서울우유 파주진료소에서 조합원을 대상으로 농가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가 있으며, 충청남도는 '찾아가는 가축질병관리제도'를 추진하면서 농가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나 회사 등으로부터 대부분을 지원받기 때문에 가축질병공제제도와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이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이 기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야 하지만 질병진료를 위해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주는데는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농가로부터 얼마를 거출할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며, 적용대상 축종과 질병도 확정되지 않았다.

정부에서 용역을 통해 발표한 농가부담금은 한우와 돼지는 마리당 약 12만원과 6천원이며, 닭의 경우는 수당 109원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는 일찍부터 가축질병공제제도를 도입한 일본의 예를 도입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다. 일본은 농업재해보상법을 근거로 1947년부터 운영, 2012년 현재 214개 지역공제조합과 277개 가축진료소(수의사 1,743명) 설치, 운영하고 있다. 단 화재, 전염병, 자연재해 사고를 제외한 폐사축 및 질병 및 손해 진료비에 대해서만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금은 농가부담을 최소화시켜 가축재해보험 내에서 운영하고 있다. 정부에서 AI, 구제역 등 전염병에 대해 접근하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가금분야에서 가축질병공제제도 개념과 실행에 대해서는 본회를 비롯한 가금분야에서도 큰 의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일본과 우리나라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일본은 장기간

의 노하우로 농가들이 부담없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농가와 정부의 공제기금 부담 비율 등 세부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한 상태이다. 가금분야에서는 기존의 가축재해보험에 특약형식으로 공제제도를 응용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농가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전 진료서비스의 정착으로 '옥상옥'이 아닌 효율적인 제도가 도입되길 기대해 본다.

브라질산 닭고기 국내 수입시장 점령 철저한 검역 등 위생에 관심 높여야...

지난해 12월 미국의 AI발생에 따라 닭고기 등 가금류와 가금육의 수입이 전면 중단되면서 닭고기 수입에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미국으로부터 수입되던 대부분의 닭고기가 수입선을 바꿔 브라질에서 수입되고 있으며, 그 물량 또한 서서히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브라질은 세계 최대의 닭고기 수출국이다. 지난해 닭고기 수입량을 보면 미국산 67,646톤, 브라질산 52,461톤으로 미국에서 더 많은 물량이 들어왔다. 미국의 AI여파로 1/4분기에는 수입량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왔으나 수입대체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대부분의 수입 닭고기가 브라질산으로 전환되었다. 올해 4~5월 브라질에서 수입한 닭고기는 총 23,518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9,061톤)보다 약 2.6배(159.6%)나 증가된 물량이다. 이 기간 우리나라에 들어온 전체 수입 닭고기 24,506톤 가운데 브라질산은 9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6월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검사한 결과 잔류물질인 노플로사신(norfloxacin)이 검출되어 해당 수입업체에 유통 중단 및 회수가 이루어진 바 있다. 본회에서도 즉각 성명서를 발표하고 브라질산 닭고기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수입된 닭고기에 대해서는 전량을 폐기함은 물론 브라질산 닭고기에 대해 전면 수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향후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닭고기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여 국내 소비를 위축시키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 복철을 앞두고 여름성수기에 접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계 산지가격은 겨우 생산비선 이하를 보이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에 따르면 닭고기 공급량이 늘어 오는 8월까지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였다. 즉 7월에는 kg당 1,300~1,400원, 8월에는 1,200~1,300원을 보일 것으로 내다보았다. 브라질산을 비롯한 수입 닭고기는 가격이 국내산 닭고기의 2/3수준에 불과해 외식업계와 단체급식 등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과 같은 추세로 닭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과잉생산과 더불어 육계경기는 장기간 불황이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를 거듭할수록 자급율이 하락하는 국내 닭고기 시장을 지키는데 관심을 보여야 할 때이다. 양계